

거시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 최현규
산업동향: 김중윤
주요뉴스: 원자윤
투자전략: 조성준
내용 취합 및 검수: 홍수연,
유동연

KOSPI 2,400p, KOSDAQ 800p 진입

은행 유동성 위기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지원에 따른 안도렐리가 지속되며 KOSPI 는 7 거래일만에 2,400p 에 재진입. 전일 미국의 조정에도 강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 2 차전지 관련주들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상승폭 반납. KOSDAQ 은 대형주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물리며 15 일부터 6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여 800p 에 진입했으나 3 월 FOMC 결과가 나온 23 일에는 개인 매도세에 하락.

은행 유동성 위기 완화, 미국 물가지표 호재로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미국 2 월 CPI 는 전년동월대비 +6.0%p(전월대비 +0.4%p)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PPI 도 전년동월대비 +4.6%p(전월대비 -0.1%p)로 예상치를 밑돌아 증시에 호재로 작용. 원/달러 환율은 은행 유동성 우려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회복, 금융안정 필요성 부각에 따른 FOMC 결과로 인해 하락하여 1,300 원 아래로 진입.

국제유가 급락 후 반등, 금 온스당 2,000 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 갱신 전망

국제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은행위기 후폭풍에 따른 경기침체, 이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우려로 WTI 유가 배럴당 64.12 달러, 브렌트유가 70.12 달러까지 내려오며 15 개월 이래 최저치. 그러나 은행 위기 완화조짐, 미국 원유재고 감소가 더해지며 3 거래일 연속 반등하여 WTI 는 배럴당 70 달러, 브렌트유는 75 달러선 진입. 안전자산인 금은 20 일 지난해 3 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2,000 달러 돌파. 금 관련 종목, ETF, ETN 에도 투심이 몰려 이달 들어 엘컴텍 47.74%, 아이티센 7.83% 상승. KODEX 골드선물(H), TIGER 골드선물(H)은 각각 6.81%, 6.55% 상승.

산업 동향

울상짓는 반도체 업계, 미국의 압박까지?

1) 반도체 수요 감소: 세계적 반도체 수요 급감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강한 PC 수요가 발생했지만 작년부터 감소세 전환.

2) 기업 실적 부진: 삼성전자 22.4Q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9% 감소한 약 4 조 3,061 억. Sk 하이닉스는 22.2Q 기점으로 영업이익 감소세, 22.4Q 약 1 조 8,984 억 적자.

3)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이슈: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리지 못함. 한편 웨이퍼 한 장당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량 증가는 허용되어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능.

주요 지수

국내증시

KOSPI 2,414.96

KOSDAQ 824.11

글로벌 증시

Dow 32,013.64

NASDAQ 11,752.67

S&P500 3,939.88

고공행진 자동차 산업, 역시 규제 이슈가 변수?

- 1) 국내 생산량 증가:** 작년 하반기 기점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누적대기 수요 실현. 지난해 2월 34.4만대 생산 (전년 동월 대비 30.2% 증가).
- 2) 내수 판매량 증가:** 대기수요 누적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2월 국산차 내수 판매량 12.5만대 (전년동월 대비 21.5% 증가). 대형 세단과 SUV, 국산 친환경차 등.
- 3) 수출량과 수출액 역대 최고치 갱신:** 수출량 전년동월 대비 34.8% 증가, 특히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의 수출량 증가가 61.6%로 두각을 드러냄. 수출액 또한 83.4% 증가. 자동차의 전동화 트렌드가 자동차의 판매량 결정 요소.
- 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해서 배터리 소재 일부를 미국 및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조달해야 하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

주요 이슈

추가 금리인상?

파월 의장은 매파 기조를 유지하며 더 많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함. 엘런 의장은 예금보호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주요평균 -1.6%로 장 마감(22일 기준).

UBS, 위기의 CS 32억 달러에 인수!

크레디트스위스와 UBS는 스위스 연방재무부, 스위스 국립은행,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개입에 따라 일요일에 합병 협정을 체결함. 불안감에 떨었던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IPO, 7월부터 '뺑튀기 청약' 원천 봉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자금력에 걸맞은 주문만 넣도록 IPO 청약 기준 개정을 추진. 주관사가 기관 자금력과 적정 매수 수량을 부실하게 검증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제재 방안도 검토. 신탁·일임 운용사는 자기자본·총자산·수탁액을, 은행·증권사·연기금 등은 자기자본·총자산 규모를 따져 최대 주문수량 제한.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 달 최종 확정.

전기료 인상 vs 동결, 고민 깊어지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년 2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등 전기요금 조정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 한전이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내년도 2 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 받음. 이에 따라 21 일 예정이던 2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

SiC 링 특허소송 최종심, '소재·물성' 특허 무효, '제조 방법' 유효

티씨케이가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SiC 링 특허침해소송 최종심 결과, 지난해 10 월 2 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SiC 링 물성 관련 특허는 무효, 제조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는 유효 판결. 관련 업계에서는 티씨케이 특허 중 일부가 무효화됐다는 점에 주목. 사실상 후발주자들의 SiC 링 분야 진출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옴.

투자 전략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안전자산 비중 확대해야

금 현물 가격이 온스 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엔화 역시 달러 당 131엔까지 떨어지며 가치 상승. 반면 경기침체 우려로 배럴 당 80달러였던 WTI 가격이 66.74달러까지 급락하며 국제유가는 하락세.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면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음. 특히 금은 금리인상 중단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더욱 상승 여력 있음.

중국 리오프닝 관련 국내 증시 전망

1) 항공주 상승 예상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하여 수혜가 예상되던 여행 관련주들이 아직 힘을 못내는 중. 관광객 증가세가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됨. 특히 항공주는 항공 화물 수요 감소로 인한 운임 하락까지 겹쳐서 부진하고 있음. 그래도 3 월말 한중 여객 노선 공급이 확대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면 매출 증가와 함께 주가 개선이 예상됨.

2) 철강·화학주 상승 예상

중국 양회가 목표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으며 기존에 중국 경기 민감주로 꼽히던 화장품 관련주들의 하락세. 이러한 상황에서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이 기대되던 종목들보다는 중국에서 발전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현재 중국은 산업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난 상황.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철강이나 화학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미 연준이 베이비스텝 관련 국내 증시 전망

미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결정하며 연말이면 금리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리인상에 눌려 있던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AI 나 2 차전지 관련 성장주의 경우 장기 성장 전망과 함께 연초 급등세를 보였고, 현재로서는 투자하기에 부담되는 가격임. 투자하기에 적절한 성장주로는 하반기 업황 개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주가 있음.